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

안숙영**

〈국문초록〉

세계화의 해석에서 이론적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과정을 성, 계급 및 인종이라는 카테고리화 무관하게 전개되는 중립적인 과정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젠더관계의 탈주제화'라는 상황에서, 세계화가 '젠더에 따라 특수하게 구조화된 과정'임을 드러내기 위한 페미니즘적 분석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먼저 경제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생산경제 혹은 생산노동의 세계화 및 재생산경제 혹은 재생산노동의 세계화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경제의 세계화가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세계노동은 남성의 일,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 특수적 노동 분업'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위기이자 기회로서의 양면성을 가진 세계화 속에서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페미니즘의 전략을 간단히 스케치한다.

주제어: 신자유주의, 생산경제의 세계화, 재생산경제의 세계화, 젠더, 복지국가

* 이 글은 2009년 10월 8일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가 개최한 제48회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발표한 “젠더의 관점에서 본 세계화”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사. ahnberlin@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2010): pp.175-202

© 201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자본주의의 변화는, 1990년대로 접어들어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이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세계경제로 편입된 이후로 ‘세계화’라는 새로운 용어로 분석되기 시작한다. 세계화는 무엇보다 무역의 자유화 및 생산과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출현을 의미하는 동시에, 동서 냉전기에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 간의 세계시장을 둘러싼 경쟁의 심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화는 동서 냉전기의 ‘군사경쟁’을 대신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경제전쟁’(Thurow, 1993)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 속에서 민족국가는 종종 세계화라는 외적 도전에 직면한 ‘운명공동체’로 이해되는 한편으로, 나아가 세계화의 영향 혹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설정된다. 국민 모두가 민족국가라고 명명된 공동의 배에 타고 있다는 전제하에, 세계화의 바다에서 힘차게 노를 저어 선두에 뱃머리를 대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상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¹⁾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도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계량적

1) 이런 경쟁 상황을 나르와 슈베르트는 “세계시장이 기준점 자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에까지 이어지는 끊임없는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국가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경쟁은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민족적 단일성’, 혹은 새로운 ‘정치적 일반성’이란 것은 누구도 경제적 생산입지로서의 독일 혹은 미국을 위협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은 질적으로 불평등한 그들의 위치에서 ‘공동의’ 보트를 국제적인 항해 경쟁에서 가능한 한 더 앞쪽으로 위치를 짓는데 기여해야만 한다.”(Narr und Schubert, 1994: 13-14)라고 비판적으로 요약하고 있기도 하다.

으로 측정해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다루어지며, 국가의 순위도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매겨지곤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와 기업의 동일시 속에서 ‘국가의 기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의 분석에서 민족국가라는 메타포가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세계화가 민족국가 내부의 구성원에게 미치는 상이한 영향은 분석의 그물망 속으로 편입되지 못한다. 특히나 세계화의 해석에서 이론적 헤게모니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과정을 그 행위자가 여성인가 남성인가와 상관없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가와 상관없이, 어느 인종에 속하는가와 관계없이, 즉 성, 계급 및 인종이라는 카테고리과 무관하게 전개되는 중립적 과정으로 바라본다. 나아가 세계화 속에서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패배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제한다. 만일 패배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 내지는 아직 완전히 관철되지 않은 개혁의 희생자, 혹은 패배자 개인의 실패로 간주할 뿐이다(Braig, 1999: 168).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젠더관계의 탈주제화’ 혹은 ‘젠더에 대한 인식의 부재’(Veil, 2001: 162)라는 상황에서, 세계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하게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즉 ‘젠더에 따라 특수하게 구조화된 과정’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페미니즘적 분석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 연구는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에서 가시화되지 않는 젠더라는 카테고리를 가시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먼저 2장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생산경제와 재생산경제의 세계화로 나누어 젠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4장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가 젠

더관계 및 여성의 삶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세계화 속에서의 페미니즘적 전략에 대해 간략히 스케치하고자 한다.

2.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과 젠더에 대한 ‘개념적 침묵’

캐나다의 정치학자 로버트 콕스(Robert Cox)는 “이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론의 권력적 측면을 강조한다.

모든 이론은 하나의 전망(a perspective)을 가지고 있다. 전망들은 시간과 공간, 특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시간과 공간에서의 하나의 입장(a position)에서 유래한다. 세계는 하나의 관점(a standpoint)에서 파악되는데, 이 관점은 민족 혹은 사회계급, 지배 혹은 복종, 부상하는 권력 혹은 쇠퇴하는 권력의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서의 관점으로부터 유리된 이론 그 자체란 것은 없다. 어떤 이론이 자신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검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기초를 놓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Cox, 1981: 128)

지식은 객관적이거나 시간 초월적일 수 없으며, 사실과 가치의 간단한 분리란 있을 수 없다는 점, 의식적이건 아니건 모든 이론가들은 불가피하게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분석에 담게 마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관념, 분석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누구 또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러한 이론이 생겨났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하는 것이다(홉슨·존스 2009: 182-183).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이론 뒤에는 하나의 관점이 숨겨져 있다는 이러한 지적은, 젠더의 차원에서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하나의 유용한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 '시장사회의 정당화를 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 시장사회를 인류역사의 문명화의 마지막 단계로 바라보며 경제에 대한 '정치의 무력화'를 그 기본적 목표로 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사회의 총체적 경제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참여적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 협소해지며, 신자유주의에서 그렇게나 강조하는 개인주의조차도 사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원자화된 개체라는 부정적인 카테고리만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는 '최소한의 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교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강한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Wissenschaftlicher Beirat von Attac, 2005: 132).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에서 세계화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 강제'로 이해된다. 민족국가라는 이름의 생산입지를 외부에서부터 포위해 들어오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과정으로 분석되며, 각국의 정부는 시장화, 민영화, 탈규제화 및 유연화 전략을 통해 시장자유주의로의 길을 강화(Griffin, 2010: 220)하는 것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제출되고는 한다. 이러한 방식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의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시장자유주의의 강화로 인해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서 그리고 각국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에는 전혀 관심

을 기울이지 않는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은 세계화 과정을 ‘가치중립적’ 과정으로 바라본다. 경제와 시장은 가치중립적이며 이 중립적 시장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경제인(a economic man)’은 계급, 성 혹은 인종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세계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계급 관계와 성 관계의 중첩 및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중첩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따라서 고려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Veil, 2001: 162). 다시 강조하자면, ‘경제인’이라는 행위자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어느 계급과 계층 및 인종에 속하는가는 질문되지 않으며, 이 ‘경제인’은 중립적인 존재로 전제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따르면, 이 ‘경제인’이라는 행위자는 ‘최대한의 시장’에 기초한 성장을 목표로 하며, 시장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정치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리적 경제인(the rational economic man)’이기도 하다. 합리적이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행위자로 가정되는 이 ‘합리적 경제인’은 근대경제학이 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체현한 인물로 상징화된다(Riley, 2008: 2). 그러나 근대경제학은 그들의 주요업무를 ‘시장적 행위’의 해명에 두고 ‘비시장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주요 활동영역인 가계생산과 가사노동 및 가계 내부의 분배 문제 등은 자연히 분석에서 제외시키게 된다(홍태희, 2005: 212). 따라서 ‘합리성’에 따라 움직인다할 때 합리성은 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남성의 입장에서 본 합리성이며, ‘경제’라고 불리는 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본 ‘시장화되고 화폐화된 경제’를 의미하며, 이때의 ‘경제인’이란 남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제인’이란 사실은 ‘남성 경제인’에 다름 아니며, 이처럼 남성 경제인이 행위주체로 상징되면서 경제학은 자연스레 ‘남성적 경제학’으로서의 성격 을 띠게 된다(홍태희, 2005: 208).

이처럼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시장에서의 기본적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는 ‘합리적 경제인’은 ‘남성 중심적 편견’(잉글랜드, 1997: 49)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무엇을 ‘경제’로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같은 여성의 무급의 경제활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그 자체가 이미 ‘젠더화된 장소’라 할 수 있다(Cameron and Gibson-Graham, 2003: 145).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으로서의 젠더가, 무엇이 노동으로 간주되는가, 누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 여러 다른 종류의 노동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결정하는 노동분업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Peterson, 2003: 31). 따라서 신고전과 경제학이 경제에 ‘총 시장생산’만을 포함시키고 ‘총 가계생산’의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강조한다 할 때, 객관성은 남성의 객관성에 불과하며 가치중립성은 경제에서 작동하고 있는 남성의 지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마스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이론적 지형 속에서,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재구조화가 젠더화된 지형 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측면이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재구조화를 둘러싼 지배적 담화는, 적자 감축 명령, 국제경쟁력, 효율성과 수출주도 성장과 같이 대부분 젠더 중립적이고 총합적인 개념들에 포박되어 있다. 구조조정과 재구조화 정책은 대부분 젠더에 기초한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지며, 여성의 경험과 저항의 전략에 대한 침묵으로 나아간다”는 지적에서처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전환과정이 갖는 젠더화된 성격에 대한 ‘개념적 침묵(a conceptual silence)’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Bakker, 1994: 1).

이런 맥락에서 ‘프로젝트’ 혹은 ‘담화’로서의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엿볼 수 있으며, 경제와 시장이 젠더 중립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은,

아래의 비판이 보여주듯, ‘헤게모니적인 젠더정치의 프로젝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전후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의 변화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객관적 필요도 아니며,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젠더 중립적 과정도 아니다. 그것은 젠더에 따라 코드화가 이루어진 사회적 공간에서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를 가리켜 나는 프로젝트 혹은 담화라고 부른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헤게모니적 담화들이다. 정체성과 관심을 만들어내고,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실천들이다. 신자유주의는 지역적 차원에서, 일국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및 상징적 공간들을 새로이 구성한다” (Sauer, 1999: 217-218).

3. 경제의 세계화와 젠더

세계화를 둘러싼 논쟁에서 경제의 세계화는 ‘생산경제’, ‘생산영역’ 혹은 ‘생산노동’에서의 변화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교환되는 지불경제 혹은 지불노동에만 주로 강조점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경제는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교환되지 않는, 즉 무지불경제와 무지불노동에 기초한 ‘재생산경제’, ‘재생산영역’ 혹은 ‘재생산노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젠더의 차원에서 경제의 세계화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는, 생산경제만이 아니라 재생산경제도 분석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한편으로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 또한 진전시켜야 한다.

1) 생산경제의 세계화와 젠더

이른바 ‘공식 경제(the formal economy)’로 이해되고 있는 ‘생산경제’에서, 세계화는 1차, 2차 및 3차 생산으로 나뉘어져있던 생산경제 내에서의 경제부문 간의 차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나 정보통신기술은 이 각각의 경제부문을 재구성하고 있다(Peterson, 2005: 508). 생산경제의 세계화를 나타내는 경향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석유를 제외한 1차 상품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1차 상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1차 상품이 지배적인 ‘제3세계’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선진국 경제들과 주요 도시들에서는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물질에 기초한 제조업으로부터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제조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에 고임금을 받던 남성의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다. 셋째, 유연화로 인해 엘리트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안정성이 침식당하고 있다. 넷째, 정보와 지식에 기초한 생산으로의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으로서, 일자리의 증가가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경제의 경우 노동력의 50-70%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화가 사람들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지역으로, 수출품가공지대로, 계절별 농촌노동자로, 그리고 관광지역으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Peterson, 2010: 209-210).

이러한 생산경제의 세계화는 동시에 ‘젠더화된 과정’이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경향은 남성, 무엇보다 경제적 및 인종적으로 특권을 지니고 있는 남성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와 권력의 제도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안녕이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성장과 통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성주의적 사고가 경제적 이론화 및 정책

형성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Peterson, 2005: 507).

이 과정에서 이른바 ‘합리적 경제인’의 새로운 유형이 형성되는데, 이들이 바로 ‘다보스 맨(Davos Man)’이라 불리는 각국의 사업가, 은행가, 관리자 및 지식인과 같은 남성 엘리트들이다. 해마다 연초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해 세계화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이들은, 다보스에서 만나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주의,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그러나 더 이상 민족국가라는 공간에는 얽매이지 않는, 즉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시장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 코스모폴리탄으로 자부하는 이들 ‘다보스 맨’은, 지구적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지구적이고 보다 현대화된 경제인의 유형으로서 세계화 시대의 ‘합리적 경제인’을 상징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Beneria, 1999: 68-69). 초국적 기업의 중요성의 증가에 따른 이러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새로운 패턴은 ‘초국적인 비즈니스 남성성(transnational business masculinity)’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다(Connell and Wood, 2005: 347).

생산경제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과정’으로서의 세계화의 다른 측면은, ‘고용의 여성화(feminization of employmen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한편으로는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의 확대 및 이와 관련된 여성의 고용증가로 인해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는 걸 뜻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고등교육을 받은 고숙련의 엘리트 여성들의 경우는 고용의 여성화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으며, 유급노동을 통해 소득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른바 ‘글로벌 도시들(global cities)’에서

지식과 정보산업 및 금융과 비즈니스 분야에 종사하며 새로운 여성 전문가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백인 중산층의 전문직 여성들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다(Young, 2005: 5). 그럼에도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남성에 비해 30-50%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의 대다수는 불리한 구조적 조건하에서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일은 종종 단조롭고 육체적으로 고되며 위험한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건강과 장기적인 노동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Peterson, 2010: 210).

이런 맥락에서 '지구적 컨베이어벨트'라 불리는 세계시장용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노동자의 증가는 '고용의 여성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1980년대 이후로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이 북반구의 제3세계로부터 남반구의 제3세계로 이전되는 '새로운 국제적 노동 분업'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생산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1차 생산이 지배하는 제3세계의 경우, 석유를 제외한 1차 상품의 가격 하락과 1차 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가 황폐화되면서, 실업 문제는 커지고 외국 투자를 유인할 능력은 줄어들며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을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거나 해외로의 노동 이주를 고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Peterson, 2005: 508). 이런 가운데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유치, 생산입지의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세계화 전략이 채택되고는 하는데, 중남미, 아프리카 및 동아시아에 설치된 이른바 '자유수출지대'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자유수출지대'는 종종 '자유생산지대', '자유무역지대' 혹은 스페인어로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로 불리는 '특수경제지대'를 의미하며, 1960년대 후반 이후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공업국에서 외국의 직접투자를 자국의 저발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유수출지대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섬유나 전자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Greven und Scherrer, 2005: 12). 이들 공장은 수출지향적인 '세계시장용 공장(global firms, Weltmarktfabriken)'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자유생산지대는 '특수 영토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수입과 수출이 민족국가의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둘째, 초국적 기업은 여성노동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건물이나 시설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넷째, 콘체른은 토지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섯째, 수입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관세로부터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유치한 수용국이 인프라구조를 갖추어주며, 도로와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화, 물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한다(Young, 1998: 186).

이 세계시장용 공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도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젊은 미혼여성들이 최상의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신흥공업국들은 경제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높은 성장률을 무엇보다 이 세계시장용 공장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아주 적은 임금으로 고용되어 몇 년간 일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공장을 떠나는 미혼의 젊은 여성들에게 말이다. 가령 1970년과 1990년 사이에 상품 수출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들에서 여성의 고용 숫자도 동시에 급속히 증가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에 여성의 고용이 25%에서 44%로 증가했는데, 수출생산과 자유화된 무역이 여성고용의 모터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

다(Wichterich, 1998: 16-17).²⁾

이 젊은 여성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어떤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가시적 노동자'이다. 이들 여성노동자는, 공식 경제(formal economy)에서 고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가시적 지식종사자'와는 달리, 즉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지식집약적인 연구, 정보 및 서비스 부문에서 근무하는 이들과는 달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한편에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 즉 대부분 백인이며 남성으로 구성된 지식종사자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일정한 공간에 묶여있는 저숙련 노동력, 즉 모든 피부색의 여성 및 젊은 비숙련 남성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공존하는, 즉 '공식 노동과 비공식 노동의 공존'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Young, 1998: 185).

이처럼 세계시장용 공장이나 수출 지향적이며 컴퓨터화 된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 가운데 80%가 여성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획득한 세계화의 승리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시골의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살던 이들 젊은 여성노동자들은 일자리의 획득을 통한 자유의 쟁취자로 묘사되기도 한다(Greven und Scherrer, 2005: 99-100).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는 종종 착취적인 노동조건 및 저임금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 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2)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오늘날에는 점점 많은 회사들이 동남아시아의 '호랑이 국가들'로부터 철수, 새로운 저임금의 엘도라도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및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시장으로의 이들 국가의 편입은 신흥공업국들이 25년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집약적 산업과 여성 노동력이 바로 그것이다.

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관계나 생계보장이 안 되는 파트타임 노동 및 임시적 노동계약 등의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2) 재생산경제의 세계화와 젠더

세계화를 둘러싼 논쟁의 특징의 하나는, 주로 ‘생산경제’에서의 변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며 ‘재생산경제’ 혹은 ‘재생산노동’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경제학의 남성주의적이고 근대화론적인 경향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관심은 권력과 유급노동 및 공식노동을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가족과 무급노동 및 돌봄 노동을 여성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관행에 의해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Peterson, 2005: 510-511).

재생산노동은 생산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의미하며, 이에는 가족의 가사일, 노인이나 어린 그리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 아이들을 사회화하는 것, 가족 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세계화의 분석에서 이러한 재생산노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계화의 노동 유출에서 젠더를 하나의 통제요인으로 강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주에서 노동의 경제적 분업에 미치는 젠더의 역할도 드러낼 수 있게 된다(파레냐스, 2009: 105-106).

대표적인 재생산노동인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영역에서의 ‘여성적 서비스의 세계화’를 보면, 노동 분업이 한 국가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생산노동의 국제적 분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즉 고숙련에 고임금을 받는 선진

국 여성과 저숙련에 저임금을 받는 개발도상국 여성 간에 새로운 노동 분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선진국의 여성들이 무보수로 하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을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여성들이 보호도 안 되고 보수도 적은 고용관계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Leitner und Ostner, 2000: 44). 재생산 노동의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분업의 원인의 하나는, 선진국에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적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재생산 기능의 일부분을 넘겨받았던 국가가 세계화 속에서 이 기능을 광범위하게 사적 부담으로 다시 떠넘겨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떠넘겨진 재생산노동은 오랫동안 특권계급에 속하는 여성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였다. 가령, 미국에서 특권계급에 속하는 백인 여성들이 재생산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유색인 여성들의 저임금 서비스 구매를 통해서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생산 노동의 인종적 분업’이 유지되어 여성들 사이의 2단계 위계화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에서의 복지국가의 축소는 사회적 재생산의 부담을 사적 부담으로 전가시키며, 재생산노동의 이러한 일국적 정치학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이주를 보내고 받아들이는 국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생산노동의 3단계 이전을 의미한다(파레냐스, 2009: 106). 따라서 재생산노동의 세계화는 성, 인종 및 계급이라는 분석의 카테고리가 어떻게 중첩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하인’의 신분을 강요당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삶은, 세계화에 따른 재생산노동의 이러한 3단계 이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필리핀으로부터 이주하는 여성들은 오늘날 세계 130개가 넘는 국가의 가사서비스 부문으로 유입, 현 시기 여성 이주의 가장 큰 규

모이자 가장 폭넓은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노동자의 세계화의 진수를 드러내고 있다. 필리핀의 비정부기구들은 필리핀 이주인구를 대략 6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로 이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여성 중 3분의 2가 가사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파레냐스, 2009: 20).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영역에서의 ‘여성적 서비스의 세계화’와 더불어, 다음으로는 여성매매 및 성매매 영역에서의 ‘섹스 서비스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sex services)’를 들 수 있다. 이는 호스티스, 노래, 춤과 같은 성적 요소를 포함한 노동을 지칭하는 ‘성적 노동(sexual work)’과 돈을 위해 섹스를 상업화하는 ‘섹스 노동(sex work)’으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으로 ‘성매매’라 알려진 섹스 노동의 경우는 오늘날 지구적 관광산업 및 섹스 관광과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되었다. 섹스 무역은 젠더화되고 인종화되었으며, 또한 특정 국가들이 섹스 관광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이른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관광사업은 국가들에 의해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가난한 나라에서 성장이라는 도전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촉진되고 있기도 하다(Peterson, 2003: 105).

이처럼 ‘육망과 몸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몸 그 자체를 ‘국제적 화폐의 한 가지 형태’(Peterson, 2003: 106)로 변화시키는 매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한편에는 경제적 전망의 부재로 인해 이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여성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성적이고 감성적인 영역 및 가사노동 영역에서 재생산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의 문제로서, 이 시장에서 상품으로서의 여성은 무역 카르텔, 납치 및 결혼알선기관의 지배를 받는다. 이 시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각국

의 까다로운 입국규정과 외국인법이다”(Leitner und Ostner, 2000: 45).

4. 세계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젠더

앞에서 살펴보았듯, 경제의 세계화는 생산과정 및 노동조건을 전 세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또한 민족국가 내에서 구성원 간의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던 복지국가의 축소 혹은 해체를 가져옴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에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각국의 정부가 세계화의 압력을 빌미로 삼아 복지국가를 다른 국가와의 국제적 경쟁에 강조점을 두는 ‘민족적 경쟁국가’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면서, ‘여성의 이익의 후원자’라는 복지국가의 기존의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민족적 경쟁국가’란 국가의 내적 구조들과 정책들이 무엇보다 국제적인 생산입지 경쟁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국가로서, 그 핵심에는 ‘생산입지정책’, 즉 일차적인 목표가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 놓여있는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Hirsch, 1998: 32). 내적인 통합으로부터 외적인 경쟁으로의 이러한 국가의 우선순위의 변화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생산입지 민족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가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한 경제적 생산입지로 파악하면서, 민족을 집단적인 정치적 주체로 고양시키는 한편으로, 나아가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포기,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의 삭감 같은 물질적 희생을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으로,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이상승배에 기초해 시장의 세계화라는 틀 내에서 자국의 경제적 우월성의 방어를 정치적 행위의 핵심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Butterwegge, 1999: 195-196).

이처럼 국제적 경쟁력의 강화를 빌미로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미니즘적 접근법 내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새로이 조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국가의 약화를 통한 생산입지의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인해 유럽식 사회모델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복지정책의 축소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남성에 의한 가족부양 모델의 침식, 사회적 서비스의 재시우화 및 여성의 부담으로의 전가 등이 페미니즘적 접근법 내에서 새로운 논쟁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복지국가의 기초를 이루던 '남성 부양자 모델'의 붕괴를 들 수 있다.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남성을 가족의 생계부양자로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운데,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을 실업, 질병 및 노년과 같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여성은 생계부양자인 남성을 매개로 사회보장을 받거나, 만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여성은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성 혹은 국가에게 어떤 형태로든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복지국가는 사회보장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상이하게 보장함으로써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재생산해 온 것이었다(Weiss, 2003: 4).

이러한 '남성 부양자 모델'은 많은 경우 사회정책이 '노동자정책', 즉 전형적이고 평균적인 남성노동자가 처하는 위협에 대한 사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되어 왔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것이 바로 '정상적 노동관계'로, 완전고용의 상황에서 한 남성노동자가 실업으로 인한 단절 없이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계노동에 종사한다는 가정이었다. 한

가족의 생계가 남성 부양자의 임금노동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으로, 또 그러한 가족임금을 보장하는 게 가능했던 이 모델의 사회정책적 기초에는, 따라서 생계노동은 남성의 일,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성 특수적 노동 분업'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남성 부양자 모델'의 기초를 이루던 이 '정상적 노동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직면해 위기에 처하게 되며, 이에 따라 '남성 부양자 모델'이 붕괴하기에 이른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 즉 '고용의 여성화'와 '고용의 비공식화'로 인해서 복지국가 하에서의 가족임금이 더 이상 충족될 수 없게 되었으며 남성의 노동만으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가족임금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공식 경제에서의 대부분의 임금이 더 이상 가족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안전을 제공하는 데 충분하지 않게 된 것이다 (Young, 2001: 38).

'남성 부양자 모델'의 뒤를 이은 것은 '2인 부양자 모델'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통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성은 생계노동 그리고 여성은 가족노동이라는 성 특수적인 노동 분업의 침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간의 분리라는 성 특수적인 분리 및 이에 기초한 생산경제와 재생산경제라는 구분이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2인 부양자 모델'로의 이행은 기존 복지국가의 남성중심적인 기초를 뒤흔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는 해석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 하에서 여성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노동과 가족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더구나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으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성 특수적인 노동 분업의 붕괴가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복지국가의 축소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의 재사유화와 여성의 부담으로의 전가 경향을 들 수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책 업무와 관련된 사무원, 사회보장의 수혜자 및 소비자로서 복지국가에 3중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가 위기에 처할 때는 특히나 강하게 타격을 받는다. 첫째, 사회적 서비스의 감소는 이 서비스가 다시 비상업적인 사적 영역의 일부분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다시 가족노동 혹은 돌봄 노동을 떠맡게 되는 상황을 결과한다. 둘째, 사회적 서비스의 재사유화는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통합을 가능케 했던 바로 그 조건을 파괴한다. 재민영화로 인해 사회적 서비스의 비용이 상승하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적극적인 동기를 상실하게 되며 가족노동과 돌봄 노동의 수행을 위해 다시 사적 영역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셋째, 복지국가에 의해 산출되었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들이 공공서비스의 해체와 더불어 사라진다. 이로 인해 여성은 실업의 위험에 보다 강하게 노출되며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 다시 일차적인 책임을 떠맡게 된다(Young, 2005: 6-7).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의 근본적인 변화, 즉 ‘남성 부양자 모델’의 붕괴와 ‘2인 부양자 모델’로의 이행 및 사회적 서비스의 재사유화와 여성의 부담으로의 전가는 복지국가와 관련한 오늘날의 여성의 딜레마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성 부양자 모델의 붕괴는 여성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기초인 남성 부양자 모델의 붕괴는 성 특수적 노동 분업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분명 하나의 새로운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위기로도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는, 2인 부양자 모델로의 이행은 여성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서비스가 공공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줄어드는 반면 시장에 의존해

야 하는 상황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는 여성의 생존보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던 복지 국가의 축소 내지는 해체를 가져옴으로써 여성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극히 어렵던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사회정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보장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과는 달리 말이다. 따라서 세계화가 국제적 경쟁력의 향상을 빌미로 복지국가를 그 일차적인 공격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의 '여성 차별적 효과'로 시선을 돌리며 세계화를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는 입장(Weiss, 2003)이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5. 결론: 지구적 전략을 향하여

앞으로 세계화라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의 패배자이며 남성은 세계화의 승리자라는 이분법적 이미지로부터 거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을 세계화의 수동적 희생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그리고 위기이자 기회로서의 세계화의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여성을 세계화 과정에서의 '능동적 행위자'로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세계화라는 변화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따라, 세계화 시대 페미니즘의 미래

적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국가의 복지국가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는 입장과 국가의 민족국가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복지국가로서의 국가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는, 복지국가를 세계화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젠더적 불평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바라보며,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던 여성 친화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즉, 복지국가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사회정책을 ‘젠더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국가 구조는 여성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페미니즘의 개입을 통해 국가의 남성주의적 성격을 제거하고, 국가의 남성성을 해체함으로써 국가의 구조를 젠더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복지국가와의 정치적 동맹이라는 기존의 전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격으로 인해 이미 1980년대부터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국가 페미니즘’의 전략이 세계화 속에서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는 달리, 민족국가로서의 국가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는, 세계화로 인해 남성주의적으로 각인된 민족국가의 경계선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민족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족국가라는 일국적 단위에 기초한 복지국가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구적 시민사회 속에서 ‘젠더 민주주의’(Sauer, 1997)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민족국가가 구조적으로 남성에게 기초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민족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개념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상이한 입장은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를 보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축소 및 폐지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적 목소리에 대항해, 복지국가는 세계화가 산출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밝히는 가운데 사회정책의 축소에 저항하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세계화 속에서 페미니즘의 중요한 목표가 젠더정책을 국제적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젠더 민주주의' 혹은 '젠더 정의'(Randzio-Plath, 2004)를 지구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한 민족국가에 포박되어 있는 복지국가적 상상력으로부터 벗어나, 즉 '복지민족주의(welfare nationalism)'를 뛰어넘는 '복지국제주의(welfare internationalism)'(Kaufmann, 2003: 39)로의 발전 또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 및 빈곤이나 대량실업의 증가와 같은 문제는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으로도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여성만이 관련된 빈곤이나 실업이 아니라 세계화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남성의 경우도 관련되는 빈곤과 실업이다. 따라서 젠더라는 카테고리과 계급이라는 카테고리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화 속에서 여성과 여성 간의 이질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이나 인종에 따라 여성의 삶의 조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여성 간의 동질성이라는 기본 가정을 넘어서서, 젠더, 계급 및 인종이라는 카테고리를 서로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잉글랜드, 폴라(1993), “분리적 자아: 신고전파 가정의 남성중심적 편견”, 마리안 A. 퍼버·줄리 A. 넬슨 공편, 김애실 외 공역, 『남성들의 경제학을 넘어서 - 페미니스트 이론과 경제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7, pp.49-71.
- 파레냐스, 라셀 살라자르 지음, 문현아 옮김(2001), 『세계화의 하인들 -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9.
- 홉든, 스티브·리처드 와인 존스(2001), “마르크스주의 국제관계이론”, 존 베일리스 외 지음,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제4판, 서울: 을유문화사, 2009, pp.172-206.
- 홍태희(2005), “경제학과 젠더: 성별경제학 정립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 김형기 엮음, 『새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 광주: 한울, pp.207-239.
- Bakker, Isabella(1994), “Introduction: Engendering Macro Economic Policy Reform in the Era of Global Restructuring and Adjustment”, Isabella Bakker (ed.), *The Strategic Silence: Gender and Economic Policy*, London: Zed Books, pp.1-29.
- Baylis, John & Steve Smith(2001),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neria, Lourdes(1999), “Globalization, Gender and Davos Man”, *Feminist Economics*, Vol. 5, No.3, pp.61-83.
- Braig, Marianne(1999), “Perspektiven des Sozialen im Globalisierungsprozeß”, Brigitte Stolz-Willig und Mechthild Veil

- Hg., *Es rettet uns kein höh'eres Wesen. Feministische Perspektiven der Arbeitsgesellschaft*, Hamburg: VSA-Verlag, S. pp.168-191.
- Butterwegge, Christoph(1999), "Wohlfahrtsstaat und Wirtschaftstotalitarismus", Arno Klönne, Eckart Spoo und Rainer Butenschön (Hg.), *Der lange Abschied vom Sozialismus. Eine Jahrhundertbilanz der SPD*, Hamburg: VSA-Verlag, S. pp.193-203.
- Cameron, Jenny and J.K.Gibson-Graham(2003), "Feminising the Economy: metaphors, strategies, politics", *Gender, Place and Culture*, Vol. 10, No. 2, pp.145-157.
- Connell, R. W. and Julian Wood(2005), "Globalization and Business Masculinity", *Men and Masculinities*, Vol. 7, No. 4, pp.347-364.
- Cox, Robert(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2), pp.126-155.
- Greven, Thomas und Christoph Scherrer(2005), *Globalisierung gestalten. Weltökonomie und soziale Standard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Griffin, Penny(2010),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Neoliberal Globalization", Laura J. Shepherd (ed.), *Gender Matters in Global Politics: A Feminist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218-233.
- Hirsch, Joachim(1998), *Vom Sicherheitsstaat zum nationalen Wettbewerbsstaat*, Berlin: ID Verlag.
- Kaufmann, Franz-Xaver(2003), *Varianten des Wohlfahrtsstaats. Der deutsche* Leitner, Sigrid und Ilona Ostner(2000), "Frauen und Globalisierung. Vernachlässigte Seiten der neuen Arbeitsteil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48, S. pp.39-46.

Narr, Wolf-Dieter und Alexander Schubert(1994), *Weltökonomie. Die Misere der Politik*, Frankfurt a. M.: Suhrkamp.

Peterson, V. Spike(2003), *A Critical Rewriting of Global Political Economy: Integrating reproductive, productive and virtual econom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_____ (2005), "How (the meaning of) gender matters in political economy", *New Political Economy*, Vol. 10, No. 4, pp.499-521.

_____ (2010), "International/Global Political Economy", Laura J. Shepherd (ed.), *Gender Matters in Global Politics: A Feminist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204-217.

Randzio-Plath, Christa (Hg.) (2004), *Frauen und Globalisierung. Zur Geschlechter- gerechtigkeit in der Dritten Welt*, Bonn: Dietz.

Riley, Maria(2008), "A Feminist Political Economic Framework", <http://www.coc.org/node/6062>.

Sauer, Birgit(1997), "Krise des Wohlfahrtsstaats. Eine Männerinstitution unter Globalisierungsdruck", Helga Braun und Dörthe Jung (Hg.), *Globale Gerechtigkeit? Feministische Debatte zur Krise des Sozialstaats*, Hamburg: Konkret Literatur Verlag, S. pp.113-147.

_____ (1999), "Es rettet uns (k)ein höh'res Wesen. Neoliberale Geschlechter- konstrukte in der Ära der Globalisierung", Brigitte Stolz-Willig und Mechthild Veil (Hg.), *Es rettet uns kein höh'res Wesen. Feministische Perspektiven der Arbeitsgesellschaft*, Hamburg: VSA-Verlag, S. pp.214-239.

- Thurow, Lester(1993), *Kopf an Kopf. Wer siegt im Wirtschaftskrieg zwischen Europa, Japan und den USA?*, Düsseldorf: Econ Verlag.
- Veil, Mechthild(2001), "Neuorientierung der Wohlfahrtsstaaten in Zeiten der Globalisierung: Verluste und Gewinne", *Österreichische Zeitschrift für Politikwissenschaft*, 30. Jg., Heft 2, S. pp.161-170.
- Weiss, Alexandra(2003), "Globalisierung - ein Angriff auf Frauen", *KOFRA: Zeitschrift für Feminismus und Arbeit* 103, S. pp.4-6.
- Wichterich, Christa(1998), *Die globalisierte Frau. Berichte aus der Zukunft der Ungleichheit*, Reinbeck bei Hamburg: Rowohlt Verlag.
- Wissenschaftlicher Beirat von Attac (Hg.)(2005), *ABC der Globalisierung*, Hamburg: VSA-Verlag.
- Young, Brigitte(1998), "Genderregime und Staat in der globalen Netzwerk-Ökonomie", *PROKLA: Zeitschrift für kritische Sozialwissenschaft* 111, S. pp.175-198.
- _____ (2001), "Globalization and Gender: A European Perspective", Rita Mae Kelly et al. (ed.), *Gender,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27-47.
- _____ (2005), "Globalization and Shifting Gender Governance Order(s)", *JSSE: Journal of Social Science Education* 2, pp.1-10, <http://www.jsse.org/2005/2005-2/pdf/globalization-young.pdf>

〈Abstract〉

Globalization, Gender and Global Strategies

Sook-Young Ahn

Neoliberalism assumes a hegemonic position regard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globalization. It describes globalization as a neutral process which has no relation to categories of gender, class and race. In this situation of 'dethematization of gender relationship', feminist analyses which emphasize that globalization is a 'process specifically structured according to gender' are lively develop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ly examines how globalization influences the lives of women, mainly focusing on the two major aspects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s, globalization of productive economy or productive work, and of reproductive economy or reproductive work. Secondly, it examines effects of globalization on welfare state and analyses the related changes in a 'gender-specific division of labour'. Lastly, it draws a brief sketch of new feminist strategies which attempt to get over the limits of a nation-state.

Key Words: neoliberalism, globalization of productive economy, globalization of reproductive economy, gender, welfare state